

儒家 道統論의 宗教的 意味 研究

金正起*

<목 차>

1. 序言
2. 유가 도통의 흐름
3. 유가 도통의 樣相과 종교적 의미
 - 3.1 한유의 배타주의
 - 3.2 주희의 포괄주의
 - 3.3 민간종교의 다원주의
 - 3.3.1 유가 도통계보의 演變과 그 의미
 - 3.3.2 삼교합일의 사상과 역사
 - 3.3.3 민간종교의 다원주의적 삼교합일
4. 結語

1. 序言

도통론은 유가가 편제한 ‘道’의 전승 계보를 말한다. 이는 유가학설 중 하나의 중요한 사상이지만, 중국의 오랜 역사의 정통성과 다양한 문화의 是非을 논할 때, 그 판단의 준거가 되는 중국인의 보편적 관념이기도 하다. 따라서 도통론이 비록 유가학설에서 출발하였다 하더라도 순수한 철학적 관념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게 되었다.

혹자는 유가의 도통론이 禪宗의 傳燈說 영향을 받아서 생긴 것으로 여기는데 이는 오해이다. 또 혹자는 韓愈에서 비롯되었다고도 여기는데 이도 오해이

* 한서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다. 한유가 선종의 전등설, 즉 ‘法嗣’관념에 영향을 받아 도통론을 처음 제기한 것은 사실이나, 유가의 도통론은 동한시대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기 전 이미 유가에서 자생한 아주 오래된 관념인 것이다. 한유는 단지 孔孟의 도통관념을 거듭 천명한 유학자일 뿐이다. 한유 이후 유학은 宋明시대에 그 기세가 정점에 이르렀는데, 이때 다시 유학자들 사이에 도통론이 활기를 띠었다. 본래 ‘道統’이라는 관념의 기원은 宋代 李元綱의 《聖門事業圖》에서 비롯하였는데,¹⁾ 남송의 朱熹가 그 용어를 사용하고,²⁾ 다른 학자들 또한 그동안 오래도록 지속된 도통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하자, 이후로 유가의 도통관념은 차츰 자연스레 중국인의 보편적 관념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 道統이 正統이란 의미로 보통명사화 한 것이다.³⁾ 하지만 오늘날 중국 사람들은 유가의 도통론에 대해 봉건적 정통관념이라고 여기고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도통의 관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도 여전히 중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유익한 점도 많음을 발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유가 도통론의 흐름과 변화의 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다시 말해서 유가 철학적 측면보다는 배타주의, 포괄주의, 다원주의라는 종교철학적 측면에서 도통론이 시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이러한 시각과 연구방법은 기존의 전통 철학적 연구방법과 사뭇 달라 생소한 면이 없는 않다. 하지만 중국의 민간종교에서는 이미 전통적 학문 연구방법이 아닌 종교철학적 차원에서 유가의 도통론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쪽 방면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없다하더라도, 그들이 주장하는 종교철학적 시각과 연구방법으로 유가의 도통론을 한 번쯤 연구해 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사료된다.

1) 김태완, 《울곡문답》, 역사비평사, 2008, 509쪽 참고.

2) 朱熹, 《朱熹集·答陸子靜五》卷36: “子貢雖未得道統, 然其所知, 似亦不在今人之後.”

3) 楊維禎(1296-1370)은 “도통은 요와 금에 있지 않고 송나라에 있다(道統不在遼金而在宋)”고 주장하였는데, 이 말은 道統을 法統, 正統이라는 ‘법의 개념’으로 쓴 경우이다.

2. 유가 도통의 흐름

유가의 도통론은 실지로 중국 역사상 나라가 위급하고 유학이 침체되었을 때 더욱 세인의 주목을 받았다. 한유의 <原道>와 李翱의 <復性書>가 그렇고, 송유의 도통론에 대한 관심이 그렇고, 牟宗三, 唐君毅, 徐復觀 등 신유학자의 도통재건 노력이 또한 그렇다.⁴⁾

역사적으로 보면 공자가 道統이란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도통 사상은 공자에서 비롯되었다. 공자는 堯·舜·禹가 순차적으로 天命을 相繼傳承 했음은 누차 지적하였다.

堯曰：“咨！爾舜！天之曆數在爾躬，允執其中。四海困窮，天祿永終。”舜亦以命禹。曰：“子小子履，敢用女牡，敢昭告于皇皇后帝……”(요가 순에게 제위를 선양하면서 말하였다. “아아, 그대 순이여! 하늘의 천명이 그대의 몸에 와 있으니, 진실로 中正함을 지킬지니라. 온 세상이 곤궁해지면 하늘의 복록도 영원히 끊어질 것이다.” 순도 우에게 제위를 선양하면서 동일한 훈계를 하였다. 湯이 말하였다. “소자 리(상탕의 이름)가 감히 검은 황소를 제물로 올리며, 감히 위대하신 하늘에 밝게 아뢰니 다. ……”)

《論語·堯曰》에 나오는 위의 예문은 堯로부터 역대 先聖의 유훈을 기록한 것으로 후대 철학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말이다. 인용문에 나오는 ‘允執其中’이란 말은 본래 《尚書大禹謨》에 나오는 “人心惟危，道心惟微，惟精惟一，允執厥中.(인심은 위태하고 도심은 잘 드러나지 않으니, 오직 정일하여 그 中正함을 잡으라.)”에서 온 말로 유가에서는 이를 ‘十六字心傳’이라고 하고, 유가의 역대 선성들이 ‘心法’을 전수한 도통의 핵심사상으로 여기고 있다. 《論語》중

4) 김득만·장윤수는 말하기를, “學統의 傳乘 관계에서 볼 때 현대 신유가는 공자와 전통 유가 사상을 존승하고, 유가 학설을 중국 문화의 정통으로 여기며, 유가의 道統을 계승하여 이를 널리 펼쳐내는 것을 자신들의 주 임무로 여겼다.”고 하였다.(《중국철학의 이해》, 예문서원, 2000, 121쪽.)

에는 그밖에도 30여차례나 堯·舜·禹·湯·文·武·周公의 聖德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공자는 스스로 “문왕이 돌아가셨으니, 예악문물이 나에게 있지 않겠는가?”⁵⁾라고 말함으로써 선왕의 聖德(道)을 이어받은 자임을 공언하였다. 또 儀封人은 말하기를 “천하에 도가 없어진지 오래되었도다, 하늘이 장차 부자로 세상을 깨우는 목탁으로 삼으실 것이다.”⁶⁾라고 하였으니, 공자는 자타가 공인한 도통의 인물이었다. 공자는 三代 이전 선성의 도를 이어받은 후계자요, 삼대 이후 도통을 열어준 繼往聖開來學의 중심인물이었다. 한유는 말하기를, “생민이래 공자 같은 이가 없고 그의 위대함은 요순보다 낫다.”⁷⁾고 하였다.

공자의 이러한 도통사상은 전국시대 맹자에게 이어졌고, 맹자 역시 스스로 공자의 도를 이어받은 후계자임을 자임하였다. 맹자가 말하였다.

五百年必有王者興，其間必有名世者，……當今之世，舍我其誰也？(500년이 되면 반드시 성왕이 출현하고, 그 동안에는 반드시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인제가 나오게 마련이다. ……요즘 세상에 나를 버리고 누가 그 중임을 감당하겠는가?)⁸⁾

맹자는 또 말하였다.

孟子曰：“由堯舜至於湯，五百有餘歲，若禹，皐陶，則見而知之；若湯，則聞而知之。由湯至於文王，五百有餘歲，若伊尹，萊朱則見而知之；若文王，則聞而知之。由文王至於孔子，五百有餘歲，若太公望，散宜生，則見而知之；若孔子，則聞而知之。由孔子而來至於今，百有餘歲，去聖人之世，若此其未遠也；近聖人之居，若此其甚也，然而無有乎爾，則亦無有乎爾。”(요순으로부터 탕왕 때까지 5백여 년인데, 우와 고요 같은 분들은 (요순을) 직접 보고서 성인임을 알았고, 탕왕은 (요순의 덕을) 전해 듣고서 성인임을 알았다. 탕왕 때부터 문왕 때까지는 5백여 년인데, 이윤과 래주 같은 분들은 (탕왕을) 직접 보고서 알았고, 문왕 같은 분은 전해 듣고서 알았

5) 《論語·子罕》：“文王既沒，文不在茲乎？”

6) 《論語·八佾》：“天下之無道也久矣，天將以夫子爲木鐸。”

7) 오수영역, 《韓愈散文選·處州孔子廟碑》：“所謂生人以來，未有如孔子者，其賢過於堯舜遠矣。”

8) 《孟子·公孫丑下》.

다. 문왕 때부터 공자 때까지는 5백여 년인데, 태공망과 산의생 같은 이는 (문왕을) 직접 보고서 알았고, 공자 같은 분은 전해 듣고서 알았다. 공자 때부터 지금까지는 백여 년이다. 지금 우리는 성인이 살던 세대에서 이토록이나 가깝고, 성인이 살던 고장에서 이처럼 가까이 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도를 계승 할 사람은 나오지 않는구나. 이후로도 역시 그들의 도를 계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⁹⁾

揚雄은 말하기를, “옛날에 양자와 목자가 세상의 正路를 막고 있었는데, 맹자께서 물리쳐서 길을 넓히셨다.”¹⁰⁾고 하였다. 맹자 이후 漢代에는 유가학설이 독존하여 도통론이 힘을 얻었다. 한유는 “맹자의 도는 자사에게서, 자사의 도는 증자에게서 나왔다.”¹¹⁾고 말하고, <原道>를 지어 堯·舜·禹·湯·文·武·周公·孔·孟으로 흘러온 도통맥을 자세히 밝혀 맹자의 도통적 지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맹자 사후 비록 荀卿, 揚雄이 있었으나 도통을 이은 인물은 아니라고 하면서, 맹자의 도가 끊어졌다고 하였다. 그는 먼저 “내가 말하는 (유가의) 도는 도가나 불가의 도와 다르다(吾所謂道也, 非向所謂老與佛之道也.)”고 전제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堯以是傳之舜, 舜以是傳之禹, 禹以是傳之湯, 湯以是傳之文武周公, 文武周公傳之孔子, 孔子傳之孟軻. 軻之死, 不得其傳焉. 荀與揚也, 擇焉而不精, 語焉而不詳.(요임금은 이것(道)을 순임금에게 전했고, 순임금은 이것을 우임금에게 전했으며, 우임금은 이것을 탕왕에게 전했고, 탕왕은 이것을 문왕, 무왕, 주공에게 전했으며, 문왕, 무왕, 주공은 그것을 공자에게 전했고, 공자는 이것을 맹자에게 전했는데, 맹자가 죽자 이것이 전해지지 않게 되었다. 순자와 양웅은 선왕의 도를 공부함을 선택하였으나 정밀함에 미치지 못했고, 선왕의 도를 말하였으나 상세함에 이르지 못했다.)¹²⁾

한유 역시 맹자를 본받아 맹자처럼 유가의 도를 천하에 널리 弘揚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여기고 말하기를, “그 올바른 선왕의 도가 나로 말미암아 얼마

9) 《孟子·盡心下》.

10) 오수형역, 《韓愈散文選·與孟尚書書》: “揚子雲曰: ‘古者揚墨塞路, 孟子辭而闢之廓如也.’”

11) 오수영역, 《韓愈散文選·送王珣秀才序》: “孟軻師子思, 子思之學, 蓋出於曾子.”

12) 오수영역, 《韓愈散文選·原道》.

간이라도 전하여지게 된다면, 비록 죽어 없어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한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¹³⁾ 한유 이후, 李翱, 孫復, 石介 등은 순자와 동중서, 양옹, 왕통, 한유를 도통의 계보에 넣어 설명하였으나, 남송 朱熹는 맹자 이후로 董仲舒와 韓愈 등은 正宗의 도통인물이 아니라고 하고, 요순 이전에 伏羲, 神農, 黃帝를 추가하였다.¹⁴⁾ 오히려 그는 북송의 周敦頤와 二程(顥, 頤)을 거쳐 본인이야말로 맹자의 도를 이어받은 眞儒라고 하였다.

周公歿, 聖人之道不行: 孟軻死, 聖人之學不傳. 道不行, 百世無善治: 學不傳, 千載無眞儒. 無善治, 士猶得以明夫善治之道, 以淑諸人, 以傳諸後: 無眞儒, 則天下貿貿焉莫知所之, 人欲肆而天理滅矣. 先生生乎千四百年之後, 得不傳之學於遺經, 以興起斯文爲己任. 辨異端, 闢邪說, 使聖人之道渙然復明於世. 蓋自孟子之後, 一人而已. 然學者於道不知所向, 則孰知斯人之爲功? 不知所至, 則孰知斯名之稱情也哉?(주공이 죽으니 성인의 도가 행해지지 아니하고, 맹자가 죽으니 성인의 학문이 전하여지지 아니하였다. 도가 행해지지 아니하면 백세에 어진 정사가 없고, 성인의 학문이 전해지지 아니하면 천대에 참다운 선비가 없게 된다. 어진 정사가 없으면 선비가 어진 정치의 도를 밝혀서 사람에게 알게 하여 후세에 전하지만, 참다운 선비가 없으면 천하가 혼미하여 사람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여, 마침내 사람의 욕심이 방사하고 하늘의 이치가 멸절하게 된다. 명도선생이 천 사백년 뒤에 태어나 전해지지 못한 도를 얻어 경서에 남기고, 도의 흥기를 자신의 책임으로 삼아서 이단을 변증하고, 사실을 물리쳐서 성인의 도를 흰히 다시 세상에 밝게 하였으니, 대개 맹자 이후로 이 한 분일뿐이다. 그러나 배우는 자가 도에 향할 것을 알지 못하면 누가 이 분의 공을 알며, 그 경지를 알지 못하면, 누가 선생의 명칭이 실정에 부합함을 알겠는가?)¹⁵⁾

주희는 위에서 程頤의 말을 빌려 程顥가 1400여년 만에 맹자의 도를 이었음을 말하고, 도통을 잇는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은근히 二程의 도가 자기에게 있음을 이르는 것이다. 또 《中庸章句·序》에서 말하기를, “중용은 왜 지었는가? 자사께서 도학이 실전될까 근심해서 지으셨으니,

13) 오수형역, 《韓愈散文選·與孟尚書書》: “雖然使其由愈而粗傳, 雖滅死萬萬無恨.”

14) 《朱熹集·滄洲精舍告先聖文》卷86: “道統遠自羲·軒.”

15) 《孟子集注·盡心下》.

대개 예부터 성현들이 하늘의 명을 받아 그 지극함을 세우시고, 도통을 전하던 것이 시작되어 왔다.”¹⁶⁾고 하여 도통의 유래를 말했다. 비록象山·陽明 등이 주희에 반하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으나 康熙時節 《朱子全書》와 《性理全書》가 세상에 나오자 주희의 학문이 득세를 하여 조야에 보편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¹⁷⁾ 아무튼 漢·唐 이후 누가 과연 유가의 도통을 계승한 正宗인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堯에서 맹자에 이르기까지의 도통은 거의 공인되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3. 유가 도통의 樣相과 종교적 의미

종교신학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에는 일반적으로 배타주의, 포괄주의, 상대주의, 다원주의 등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거나, 혹은 상대주의를 뺀 삼분법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여기서 종교신학이란 기독교신학을 지칭하고 있는데, 일부 근본주의 기독교신학자들의 다원주의에 대한 글은 상당히 단호하고 과격하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윤영해는 불교학의 입장에서 위의 사분법을 적용해 <유교와 도교, 그리고 불교의 다원주의의 가능성>¹⁸⁾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필자는 여기서 편의상 삼분법을 이용해 유가의 도통관념을 살펴보려고 한다. 또 위의 종교적인 개념들을 다소 폭넓게 적용하여 종교와 학설의 구분 없이, 예를 들어 유가와 유교, 도가와 도교, 불가와 불교 등 教·學의 구분에 얽매이지 않고 설명할 것이다.

16) 朱熹, 《中庸章句·序》: “中庸何爲而作也. 子思子憂道學之失其傳而作也. 蓋自上古聖神繼天立極, 而道統之傳有自來矣.”

17) 윤영해는 말하기를, “주자는 중국사상사에서 가장 뚜렷한 획을 긋는 방대한 사상체계인 神儒學을 집대성해 낸 거장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그의 저술들이 과거시험의 교과서가 되고, 그의 학문이 (1414년) 官學으로 확립되면서부터 주자는 동아시아 사람들의 삶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고 하였다.(《주자의 선불교비판 연구》, 13쪽.)

18) 윤영해, 《불교학연구》, 제5호, 2002.

3.1 한유의 배타주의

배타주의란 “전통적으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등, 유일신을 믿어온 종교들이 타종교를 대하는 태도이다. 이들은 자신의 종교만을 유일한 참 종교라고 여긴다. 그렇다면 자신 이외의 것은 모두 허위거나 오류일 수밖에 없다. 배타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타종교는 흑세무민이나 미신일 뿐이기에 척결의 대상이다. 그래서 배타주의는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개종시키려는 개종주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면 처단해버리고 마는 聖戰主義다.”¹⁹⁾ 용어의 해석이 자못 호전적이기는 해도 이것이 유학자 한유가 佛·道를 대하는 입장으로 보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물론 기독교의 성전주의자와 한유의 의식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불·도에 대한 한유의 인식은 맹자의 ‘距楊墨(양묵의 언론을 종식시킴)’의 기개를 답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⁰⁾

한유는 唐代 유가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처음으로 도통설을 제창하여 유학 부흥의 여론을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그 道統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였고, 유가의 도가 불·도의 도와 어떻게 다른지 드러내려고 노력하였다.²¹⁾ 한유의 이러한 의식의 저변에는 유가학설이 불·도보다 우월하고 정통이라는 의식이 충만함을 알 수 있다.

夫所謂先王之教者何也? 博愛之謂仁, 行而宜之之謂義, 由是而之之謂道, 足乎己無待於外之謂德. 其文, 詩書易春秋. 其法, 禮樂刑政. 其民, 士農工賈. 其位, 君臣父子師友賓主昆弟夫婦. 其服, 麻絲. 其居, 宮室. 其食, 粟米蔬果魚肉. 其爲道易明, 而

19) 윤영해, <유교와 도교, 그리고 불교의 다원주의 가능성>, 《불교학연구》, 제5호, 2002.

20) 맹자는 “양주와 목적이 말이 천하에 가득하여 천하의 언론이 양주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목적에게 돌아가고 있다.(楊朱墨翟之言盈天下, 天下之言, 不歸楊則歸墨.)”면서, “양주와 목적이 학설을 종식시키지 아니하면, 공자의 도리가 드러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간사한 말이 백성을 속이고, 인과 의를 막음이다.(楊墨之道不息, 孔子之道不著, 是邪說誣民, 充塞仁義也.)”라고 하고, “距楊墨, 放淫辭(양묵의 언론을 종식시키고, 간사한 언론을 추방시킴)”를 자기의 임무로 여겼다. 이상 《孟子·滕文公下》.

21) 엄밀히 말하면 한유 이전에 隋朝의 유학자 王通도 미약하나마 “幾斷幾續”의 도통설을 제기하였다.(李書有主編, 《中國儒學倫理思想發展史》, 江蘇古籍出版社, 1992, 249- 251쪽 참고.)

其爲教易行也.(이른바 선왕의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널리 사랑하는 것을 인이라 하고, 행하여 이치에 맞는 것을 의라 한다. 이를 따라가야만 하는 것을 도라 하고, 자신에게 충족되어 있어서 밖에 기대함이 없는 것을 덕이라 한다. 그 도는 시, 서, 역, 춘추에 있으며, 그 법도는 예, 악, 형, 정에 있다. 선왕의 백성은 선비, 농부, 공인, 상인이며, 선왕이 정하신 위계는 임금, 신하, 아비, 자식, 스승, 친구, 손님, 주인, 형, 동생, 남편, 아내이며, 선왕이 정하신 옷은 베와 명주이고, 선왕이 만든 신 거처는 궁궐과 집이며, 선왕이 먹게 한 음식은 조와 쌀, 채소와 과일, 어물과 육류이니, 선왕의 도리는 명백히 알기가 쉽고, 선왕의 가르침은 실행하기가 쉽다.)²²⁾

한유의 이 말은 유가의 선왕들이 대대로 전승하였던 ‘道’의 핵심은 ‘仁義’라는 것이다. 오직 仁義를 중심논리로 삼는 유가만이 세상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大學》의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실천적 윤리를 강조하였다.²³⁾ 그는 또 인의를 강조해 말하기를, 仁與義, 爲定名. 道與德, 爲虛位(인과 의는 定名이요, 도와 덕은 虛位(형식)이다.)²⁴⁾라고 하였다. 한유는 여기서 인의를 도덕의 전면으로 내세우고, 각각 정명과 허위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 말은 유가의 입장에서, 인의를 제외하고 달리 도덕이 없으므로, 仁義之道, 혹은 仁義之德이라고 하는 것인 바, 老莊은 道德을 숭상한다면서도 “천지는 仁하지 않다.”²⁵⁾는 등, 인의를 배척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²⁶⁾ 한유는 “불·도의 폐해가 楊·墨보다 심하다.”²⁷⁾고 여기고 憲宗이 불골을 궁중으로 들이려 하자 죽음을 무릅쓰고 元和14年 <論佛骨表>를 올려 말하기를, “부처는 본래

22) 오수영역, 《韓愈散文選·原道》.

23) 한유가 《대학》과 《맹자》를 중시하고, 이고가 《중용》을 중시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한대에서 당대까지 유가는 五經을 중심으로 학문을 하였다. 그러나 송대부터 四書가 五經을 압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있어 한유와 이고의 영향이 적지 않은 것이다.

24) 오수영역, 《韓愈散文選·原道》.

25) 《老子》第5章: “天地不仁.”

26) 가노나오키지, 오이환역, 《중국철학사》, 을유문화사, 1988, 343쪽 참고. 부연하자면, 인의가 없는 노자의 도덕은 실속이 없다는 것인데, 이는 ‘大道’의 의미를 간과한 것이어서, 주희도 후에 이점을 지적하였다.(규토타료은, 최준식역, 《중국유불도 삼교의 만남》, 167쪽 참고.)

27) 오수영역, 《韓愈散文選·與孟尚書書》: “釋老之害過於楊墨.” 이고도 그의 <再請停率修寺觀錢狀>에서 “佛法害人甚於楊墨”(김용남, 《성리학, 유불도의 만남》, 46쪽에서 재인용)이라고 같은 말을 하고 있으나, 이고의 불교비판은 한유처럼 극렬하지 않았다.(김용남의 같은 책 36-52쪽을 참고할 것.)

오랑캐라 중국과 말이 통하지 않고, 의복과 제도가 다르며, 옛 선왕들의 어진 말을 한 일이 없고, 몸에는 옛 선왕들이 정한 옷을 걸치지 않으며, 군신간의 의리도 모르고 부자간의 정도 모르는 자입니다.”²⁸⁾ 하였다. 결국 한유는 현종의 미움을 사 潮州刺史로 좌천되는 곤경을 치렀다.

한유는 <原道> · <論佛骨表> · <與孟尚書書> 등의 글을 통해 불교를 비판하였는데, 한유가 불교 비판의 근거로 삼은 것은 다음의 두 가지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열반경》의 “모든 존재는 무상하다 그러므로 寂滅로써 즐거움을 삼는다.(諸行無常寂滅爲樂)”는 가르침에 대해 불교가 무위도식하는 종교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불교는 세상을 버리고 은둔하여 마음 닦는 법만을 가르치고 천하를 돌보지 않아 하늘이 부여한 常道를 무너뜨린다고 말한다. 둘째는 “오랑캐들에게 왕이 있는 것이 중국에 왕이 없는 것만 못하다.”는 《논어》의 말에 근거하여 불교는 천박한 오랑캐들의 문화라고 비판하였다.²⁹⁾

한유가 도통설을 내세우고 불·도를 배척한 목적은 유학이 여타의 학문에 눌러 멸절되지 않기를 바라서였다. 송명시대에 신유학이 꽃피운 것은 그의 바람의 성취이자, 그의 분투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자기가 불교와 도가를 배척하고 유학을 선양한 공을 스스로 맹자가 揚·墨을 누르고 유학을 선양한 것과 같다고 여겼지만, 사람들은 한유가 불교를 공격한 것은 송유가 불교교리에 통해 있으면서 六經에 의거하여 불교를 배척한 것에 비해 의론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³⁰⁾ 하지만 한유가 신유학에 끼친 공은 ‘크다’고 하니 할 수 없다.

28) 오수영역, 《韓愈散文選·論佛骨表》: “夫佛本夷狄之人, 與中國言語不通, 衣服殊製, 口不言先王之法言, 身不服先王之法服, 不知君臣之義, 父子之情.”

29) 송하경·안은수, <당송대 유학자들의 排佛 의식>, 《동양철학연구》, 제25집, 2001 참고.

30) 上同.

3.2 주희의 포괄주의

북송초기, 周敦頤, 程顥, 程頤 등 신유학자들은 고대의 유학사상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동시에 불가의 사변구조를 받아들이고 아울러 도가의 우주론을 흡수한 道學이라는 새로운 사상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외에도 氣一元론을 주장한 關學派 張載가 있다. 물론 그의 유물론적 사상도 주희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지만, 주희는 주로 洛學派 二程의 유심주의를 받아들여 이를 발전시켰고, 장재의 사상은 明代 王廷相과 王夫之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 신유학으로 일컬어지는 이들의 도학은 외부적으로는 불·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불·도의 이론을 수용하여 실질적으로는 포괄주의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포괄주의는 “자신의 종교가 다른 모든 종교들을 예외 없이 포괄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는 일단 다른 종교들을 송두리째 무시하지 않고 일부 인정한다는 점에서 배타주의와 다르지만, 그 일부가 부분적인 참에 불과하기에 궁극적으로 타종교는 전체적으로 완전한 자신의 종교에 포섭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결국 포괄주의는 자신의 종교와 타종교를 우열 관계로 파악함으로써 자신의 종교만 최고의 진리요 최종적인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³¹⁾

필자는 여기서 주로 송대 유학의 집대성자인 주희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인데, 주희의 학문이 과연 포괄주의의 내용을 띠고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한유보다 더 조직적이고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불교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외양만 본다면 한유와 마찬가지로 배타주의 유학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외양이 아닌 내면을 본다면, 그는 배타주의 자라기 보다는 포괄주의 유학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주희는 유교의 中和思想으로 불교와 도교에 대해 관용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공자의 학문이 우등하다는 점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주희의 이러한 “기

31) 윤영해, <유교와 도교, 그리고 불교의 다원주의 가능성>, 《불교학연구》, 제5호, 2002.

독교적 포괄주의”³²⁾ 경향은 명·청을 거쳐 근대 신유학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신유학자들은 본시 불교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주돈이는 여산 東林寺의 常總에게서 선을 공부했고,³³⁾ 정호는 화엄과 열반을 공부했고, 정이는 선을, 주희는 화엄과 선을 공부했었다. 송대 사회에서 불교는 이미 사대부들의 교양이었고 상식이었던 것이다. 이들이 佛·道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배불의 입장에 선 것은 송대 사대부들의 기풍이라 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각성과 책임감, 그리고 이어지는 유가의 인의를 바탕으로 한 실천적 현실참여, 즉 경제·경륜의 정신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송대 사대부들의 기풍은 사대부들의 잠언으로 유명한 范仲淹의 ‘先憂後樂’³⁴⁾ 정신에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그래서 이들도 한유와 비슷하게 주로 불교가 조세와 부역을 피해 국가의 재정을 좁먹는다거나 혹은 부자, 군신관계를 끊어 인륜강상을 위해한다거나 하는, 주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불교의 교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이들이 기본적으로 유가 사상에 입각하여 국가와 사회의 안녕과 질서에 관심을 가져서이다.

신유학자들의 학설에서 불·도의 흔적을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주돈이는 불가사상뿐 아니라 특별히 도가사상에도 조예가 깊었는데, 그가

32) 김용표는 포괄주의에는 불교 포괄주의와 기독교 포괄주의가 있는데, 불교 포괄주의는 다른 종교의 진리를 배척하지 않으면서 타종교를 불교 속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기독교 포괄주의는 자신의 절대 진리 사상을 높은 위치에 올려놓고 관용을 베푸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하였다.(김용표, 《불교와 종교철학》, 2006, 136쪽 참고.) 이러한 논리로 보면 주희는 기독교 포괄주의자에 속한다. 기독교신학자로서 포괄주의 입장을 견지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기독교 교리 자체가 유일신을 믿는 배타적 교리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20세기 초 최병헌의 다음과 같은 말도 기독교 포괄주의에 속한다 하겠다. “소식채죽(蔬食菜粥)과 고량옥식(高粱玉食)이 다 같이 음식이로되 귀천(貴賤)과 미악(美惡)이 있나니, 옥식을 만나지 못하여서는 초식을 먹으려니와 옥식을 보고도 의심하여 먹지 아니하면 실로 어리석은 사람의 지혜 없는 일이다.(최병헌, 《聖由明鏡》, 東洋書院, 1912, 27쪽.)”(이찬수, <한국 불교와 그리스도교 관계의 역사>에서 재인용. 《종교교육학연구》, 제19권, 2004.)

33) 주돈이는 상충 이외에 여러 불승들과 빈번한 교제를 했으며, 또 그가 <愛蓮說>의 작자라는 것은 단지 그가 불교에 호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 사대부들의 불교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지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34) 范仲淹, <岳陽樓記>: “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歟!”

지는 《太極圖說》은 유·불·도의 사상이 혼합된 간명한, 그리고 새로운 유가식 우주론체계인 것이다. 주희 또한 “사람마다 태극이 있고, 물물마다 태극이 있다(人人有一太極, 物物有一太極).”³⁵⁾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도가사상의 연용일 뿐만 아니라 불가의 《華嚴經》의 ‘月印萬川’ 관념을 연용한 것이기도 하다. 즉, 우주에는 오직 하나의 태극이 있는데, 그 태극이 모든 사람, 모든 사물에 그대로 분산되어 있으니, 그것은 하늘에 떠 있는 한 개의 달이 모든 강물에 照射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여기서 태극이란 삼라만상의 생성과 존재에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 총제적인 ‘理’를 뜻한다. 이것이 그의 ‘理一分殊’ 이론이다. ‘理’는 ‘合—’의 사유를 가능케 하는 원리인 바,³⁶⁾ 주희는 여기서도 화엄의 ‘四法界說’ 등 불가의 이론을 동원하고 있다. 이로 보아 주자학의 우주론과 존재론은 불가의 이론뿐만 아니라 주돈이가 유·불·도 사상을 혼합하여 지은 《太極圖說》에도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주희가 《參同契》와 《陰符經》 같은 도가 서적에 관심을 가지고 校註 작업을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주희는 “유가학설이 우수하다”는 입장에서 불·도에 관용을 베푸는 것 같은 기독교적 포괄주의를 견지하고 있다.

아무튼 주희의 학문은 ‘朱子學’이란 이름으로 송·원·명·청 시대를 풍미하였지만 이러한 여러 사상의 혼재와 종합이 반드시 학자들로부터 칭찬만 받은 것은 아니다. 陳亮·葉適 같은 공리주의 학자의 공격은 차치하고라도, 육구연의 반론은 주자학 이론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였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앞에서 언급했던 유가의 ‘十六字心傳’의 정신에 대해서도 주희는 주로 ‘治國’의 입장에서 바라보았고, 육구연은 주로 ‘治心’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러니 한 것은 주희 본인이 불가의 이론을 끌어와 主理論을 설명했으면서도, 육구연의 心學이야말로 불교의 선학을 유학으로 끌어와 자기화했다고 공박하였다는 점이다.³⁷⁾

35) 《朱子語類》卷94.

36) 理는 氣를 포함하여 모든 만물을 생성화육하게 하는 근본 원리이므로 만사만물의 이치는 理로 귀결, 종합, 합일된다는 것이다.

37) 이에 관하여는 김득만·장운수의 《중국철학의 이해》, <주희와 육구연의 철학적 논

3.3 민간종교의 다원주의

3.3.1 유가 도통계보의 演變과 그 의미

유가의 도통계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둘은 철학자들의 계보이고 나머지 하나는 민간종교가들이 주장하는 삼교의 인물이 망라된 계보이다. 이 외에도 이고라든지 왕통이 한유와 다른 도통계보를 주장하였으나 한유만큼 영향력이 크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한유의 도통계보】

堯→舜→禹→湯→文→武→周公→孔子→曾子→子思→孟子→韓愈……

【주희의 도통계보】

伏羲→神農→黃帝→堯→舜→禹→湯→文→武→周公→孔子→〈顏淵/曾子/子思〉→孟子→周濂溪→〈程明道/程伊川〉→朱子……

【민간종교의 도통계보】

伏羲→神農→黃帝→少昊→顓頊→帝嚳→堯→舜→禹→湯→伊尹→太公望→〈文/武/周公〉→老子→孔子→〈顏淵/曾子〉→子思→孟子…… 達摩→慧可→僧燦→道信→弘忍→惠能……

한유의 도통계보는 공맹의 도통 사상을 이어 처음으로 그 계보를 만들고, 맹자의 도통 승계를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주희의 도통계보는 요·순 앞에 복희·신농·황제를 추가하고, 맹자 이후로 周濂溪과 二程을 추가한 것이 특색이다. 복희·신농·황제는 공자가 일찍이 도통의 계보에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인물들이다. 주희가 요·순에 앞서 이들

을 추가하였다는 것은 도통의 淵源을 더 深遠하게 하였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러한 신화적 인물이 주는 종교, 문화적 의미도 무시할 수 없다. 오히려 복희·신농·황제의 추가는 역사적 의미보다는 종교, 문화적 의미가 더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복희는 팔괘를 창시한 ‘人文始祖’요, 여와와 더불어 ‘인류를 창조’한 신화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희의 주장은 도통의 의미가 역사 영역에서 종교문화 영역으로 확대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주희의 이 주장에 중국인들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근래 중국인들이 文化尋根運動(뿌리찾기운동)의 일환으로 자신들을 炎黃子孫이라고 칭하다 연원이 더 깊은 羲黃子孫으로 고쳐 부르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주희는 동중서, 양옹, 왕통, 한유를 불인정하고, 濂溪와 二程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도통이 공자 이전에는 堯-舜-禹-湯-文-武-周公 등 제왕에 머물렀다가 공자 이후에는 일반 儒生 즉 火宅으로 내려왔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나중에 명·청시대 민간종교에서 ‘道降庶民’이란 화두로 일반 민중들에게 크게 어필하게 된다. 이는 종교관념의 확대이자 민중의식의 대두이다. 이로써 유가의 도통 관념은 통치의식에서 종교, 문화 의식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모종삼이, “도통의 긍정은 곧 도덕과 종교의 가치를 긍정하고 공맹이 일으킨 인생과 우주에 대한 본원을 중히 여기는 것이다.(道統之肯定, 此即肯定道德宗教之價值, 護住孔孟所開闢之人生宇宙之本源.)”³⁸⁾라는 말과 인식을 같이한다.

다음으로 민간종교가들이 주장하는 “삼교합일의 다원주의적 도통계보”는 다음과 같은 특색이 있다. 여기서 민간종교란 멀리는 大乘教, 靑蓮教 계열이고, 가깝게는 청련교에서 파생한 一貫道, 先天道, 同善社, 金丹教, 皈根教, 燈花教 계열을 말한다.³⁹⁾ 청대 및 해방 전후 정부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임시로 사용

38) 모종삼, 《道德的理想主義·序》. (羅義俊, <中國道統: 孔子的傳統>에서 재인용.)

39) 大乘教는 明末清初 羅祖教에서 파생하였고, 靑蓮教는 道光年間 袁志謙이 대승교를 개명한 것이며, 一貫道는 光緒年間 청련교에서 파생한 교단이다. 그 외 先天道, 同善社 등도 일관도와 엇비슷한 시기로 보면 된다.

했던 교명까지 더하면 수많은 교명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교단은 파가 나뉘면서 후대 조사의 이름이 바뀌긴 했어도 이들 교단의 공통점은 '삼교합일'의 사상과 '도통맥'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 거론한 도통인물 중 복희에서 맹자까지는 한유나 주희의 도통인물과 크게 차이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유나 주희와는 달리 文·武·周公 앞에 伊尹과 太公望을 추가했으며, 또 공자 앞에 老子를 추가했음을 알 수 있다. 伊尹은 湯을 보좌해 천하에 왕 노릇하게 한 상왕조의 개국공신이고, 太公望은 무왕을 도와 천하에 왕 노릇하게 한 주왕조의 개국공신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노자는 좀 특별하다. 노자는 도가의 인물이기 때문이다.⁴⁰⁾ 그리고 달마에서 혜능까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중국선종의 조사들이 도통인물로 추가 되었다. 달마는 본시 서역 사람으로 불교의 28대조사인데 梁武帝 때 중국으로 건너와 선종의 초조가 된 사람이다. 달마가 서역에서 시작된 불가의 도통을 중국으로 가져온 것을 민간종교에서는 '老水還潮'라 한다. 즉, 어제의 汐水가 오늘의 潮水가 되듯, 맹자에서 끊어진 도통이 인도 불교의 한 조사를 통해 다시 중국에 건너와 그 맥이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6조혜능 이후 선종은 선종대로, 민간종교는 민간종교대로 각기 다른 조사의 계보를 갖고 있으나, 여기서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6조 이후 선종의 조사계보는 잘 드러나 있지 않다.⁴¹⁾ 이렇게 도통계보의 인물만 놓고 볼 때, 민간종교의 도통계보에는 삼교의 인물이 '평화롭게'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⁴²⁾

40) 黃老思想의 원조인 黃帝도 도가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공자 이전의 인물들은 모두 유가의 전신으로 유가에 속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리고 기왕에 노자를 추가했다면, 왜 장자는 추가하지 않았는지 의문점으로 남게 된다.

41) 선종의 조사계보에 대하여는 정성본, 《선종의 전등설 연구》(민족사, 2010.)를 참고할 것.

42) 기타 민간종교의 도통인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拙文 <清代 民間宗教 祖師 研究>上·中·下를 참고할 것.(한국중국문화학회, 《중국학논총》23,25,34집)

3.3.2 삼교합일의 사상과 역사

흔히 민간종교의 도통계보라면 마땅히 신화적 인물이 대거 등장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교단 내 신비스런 인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모두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도 또 하나의 특색이라면 특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한유나 주희의 도통과는 달리 맹자 이후 바로 선종의 도통을 이어놓았다는 점에 주시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가의 도통인물이나 선종의 도통인물들은 위의 민간종교 교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그들의 도통인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흔히 조사를 充當했다고 여겨 그들의 도통인물을 아예 부정해버리는 것이다. 마치 제도권에서 대안학교를 바라보듯, 민간종교를 그냥 없어도 그만인 대안종교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주장을 말살하는 것이다. 馬西沙·韓秉方은 그들의 저서 《中國民間宗教史》에서 말하기를, 오히려 혜능 이후 현재까지 이어진 그들 자신의 조사계보에 대해서는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⁴³⁾ 따라서 우리는 민간종교는 하등종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平心靜氣하여 민간종교의 도통계보를 살펴보면, 하나의 커다란 원칙, 곧 삼교합일이라는 ‘평등과 평화’ 사상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사 충당설은 민간종교의 맹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다. 맹점으로 본다면 말 그대로 조사를 충당한 것이고, 장점으로 본다면 유구한 중국의 역사와 문화, 즉 ‘중국의 도통정신’을 모두 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종교가 “삼교합일의 다원주의적 도통계보”를 주장한 것은 그들이 임의로 날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위진남북조시대부터 유·불·도의 일각에서 서로 일관되게 주장해온 삼교의 조화론 내지는 일치설의 결과였다.⁴⁴⁾ 그러다

43) 馬西沙·韓秉方, 《中國民間宗教史》, 上海人民出版社, 1992, 1093쪽.

44) 삼교합일의 역사에 관하여는 구보타료온지, 최준식역의 《중국유불도 삼교의 만남》을, 혹은 唐大潮의 《明清之際道教“三教合一”思想論》을, 혹은 최일범의 <불교와 도교, 대립과 투쟁 그리고 융합>을 참고할 것.

명·청시대에 이르러 삼교합일사상은 점차 무르익어 사대부 등 지식분자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에게까지 널리 인식, 분포되어 ‘三一敎’라는 민간종교가 등장하기도 한다.⁴⁵⁾

역사적으로 삼교합일이 되기까지는 유·불·선이 서로 비판과 조화와 융합이라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여기서는 다만 도교 측에서 불교를 논박하기 위해 지어낸 ‘老子化胡說’에 관련된 道·佛의 논쟁만 간단히 정리하여 이들이 합일되기까지 얼마나 격렬한 투쟁을 벌였는지 그 일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史記》에 의하면 老子는 말년에 函谷關을 빠져나가 서쪽으로 갔다고 했는데, 老子는 서쪽 어디로 갔으며, 또 서쪽으로 간 까닭은 무엇일까? ‘老子化胡說’에 의하면 老子는 서쪽 인도로 가서 석가모니가 되어 그곳 사람들을 제도했다는 것이다. 불교가 처음 중국에 들어왔을 때 중국 사람들은 불교는 중국의 황노신선술의 일종으로 생각했고, 불교 자신도 중국에 쉽게 도착화하기 위하여 黃帝나 老子에 의지하고 중국 전통신앙과 결합하여 불교교리를 전파하려고 하였다. 東漢末期에 이 ‘老子化胡說’이 등장하자 불교는 ‘老子化胡說’을 역으로 이용하여 불교의 교리중 하나인 輪回轉生論과 불교와 도교는 본래 근원이 하나라는 것을 선전하였다. 삼국시대가 되어 불교의 교리가 민간에 충분히 전파되자, 이때부터 불교는 ‘老子化胡說’을 반대하기 시작하였고, 도교는 불교만 못한 하등 종교라고 공격하기 시작했다. 위진시대 도·불은 서로 세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晉 惠帝 때 도사 王浮는 ‘老子化胡說’을 근거로 《老子化胡經》을 지어 불교를 공격하였고, 이후에 또 도사 顧歡이 《夷夏論》을 써서 불교를 공격하니, 불교도 이에 뒤질세라 紹는 《正二敎論》을 쓰고, 謝鎮은 《與顧道士析夷夏論》을 쓰고, 朱昭는 《難顧道士夷夏論》을 쓰고, 慧通은 《駁顧道士夷夏論》을 써서 도교를 공격하였다. 北魏 孝明帝 때에는 조야가 도·불 논쟁으로 들끓었다. 와중에 姜斌이라는 도사는 불교를 신봉하는 孝明帝에 의해 귀양을 가기도 하였다. 이러한 도·불 논쟁은 隋唐 시대에도 여전

45) 삼교합일하면 먼저 林兆恩의 삼일교를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삼일교는 도통맥을 내세우지 않았고, 유교를 중심으로 삼교합일을 주장하고 있어 여기서 논외로 하였다.

하여 隋 開皇三年에 승려 彦琮은 《辯教論》을 썼고, 唐 顯慶五年에는 승려 靜泰와 도사 李榮이 궁중에서 《老子化胡經》의 진위에 대한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당대의 승려들은 여러 번 조정에 상소를 올려 《老子化胡經》을 불태워 버릴 것을 주장하였고, 그러다가 元代 세조에 이르러 '道經'이 수난을 당하였는데, 이때 이 책도 망실되었다가 청말 돈황석굴에서 《老子化胡經》 일부가 다시 발견되었다.

이처럼 삼교의 논쟁은 겉으로는 대립과 갈등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논쟁을 통해 사상교류와 융합을 이룰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인도의 불교가 중국에 정착하기 위해 변용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결과 중국화된 불교(선종, 화엄종, 천태종)가 태어났고, 도·불 사상을 흡수한 신유학이 태어난 것 등이다.

3.3.3 민간종교의 다원주의적 삼교합일

종교철학적으로 다원주의라는 용어는 각 종교가 동등하게 구원의 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론이다. 또는 종교적 진리가 한 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원적으로 존재한다는 이론이며, 사회적으로는 여러 종교의 정치적, 사회적 평등성을 의미하는 말로 쓰인다.⁴⁶⁾ 그러면 삼교합일은 다원주의인가? 유일신교에서는 다원주의를 이단의 농간이라고 말한다. 에큐메니컬 운동(교회일치운동)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도대체 무엇이 옳은가?

<虎溪三笑圖>의 주인공 승려 혜원은 <答何鎮南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上極行葦之仁, 內匹釋迦之慈, 使天下齊己, 物我同觀. 則是合抱之一毫, 豈直有間於優劣, 而非相與者哉. (옛날 성인들은 소와 양으로 하여금 갈대도 함부로 밟지 못하게 하는 仁愛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석가의 자비와 같은 것이다. 또 노장은 천하의 만물을 내 몸과 동일하게 여겼으니, 만물을 사랑함에 아름답디 나무이든 혹은

46) 김용표, 《불교와 종교철학》, 2006, 136쪽.

풀 한 포기이든 무슨 차이를 두었겠는가?)⁴⁷⁾

혜원은 유교의 '仁愛'와 불교의 '慈悲'와 도교의 '齊同'이 다 동일한 '사랑'이라고 주장하였다. 《신약》에도 말하였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 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⁴⁸⁾라고. 믿음보다 사랑이 앞선다는 것이다. 斷章取義해서 위의 인용문만 놓고 본다면 완벽한 다원주의자의 말 같지만, 실은 불교를 중심으로 삼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불교의 입장에서 삼교의 조화를 내세운 牟融의 <理惑論>과 비슷하다. 그러나 타 종교를 평등하게 존중하고 진리를 인정하며, 자기 종교의 절대성을 고집하거나 완전성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포괄주의가 아니라 다원주의에 속한다고 하겠다.

삼교합일 사상이라 해서 삼교의 사상이 모두 일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위의 혜원의 말은 삼교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바가 일치한다는 것이지만 모든 교리가 일치하니 하나로 통합하자는 것이 아니다. 포괄주의자는 優劣을 부각시켜 내 것을 주장하고, 다원주의자는 삼교가 일치하는 면을 부각시켜 융화와 포용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혜원의 삼교합일 사상은 주희의 포괄주의와는 사뭇 다르다. 주희는 유가가 우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며 평등한 삼교합일도 주장하지는 않았다.

윤영해는 "유불도 삼교는 타종교를 일부라도 수용하는 포괄주의다."라고 하면서 "유불도 삼교의 이러한 포괄주의적 성격에 힘입어 동북아시아에서는 삼교합일론이라는 이름으로 삼교가 서로 자극하고 반응하면서 상호발전을 이루어 왔다."⁴⁹⁾고 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삼교합일의 주장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본다. 우열을 비교하여 삼교합일을 주장하면 포괄주의이고, 평등과 포용으로

47) 慧遠, <答何鎮南書>. (계환역, 《弘明集》卷五, 동국대학교 역경원, 2008. 참고) 원문에서 '行葦'란 《詩·大雅·行葦》에 나오는 편명으로 周나라 선조들의 덕성이 초목에까지 미쳤음을 칭송하는 말이다.

48) 《고린도전서》13:2.

49) 윤영해, <유교와 도교, 그리고 불교의 다원주의 가능성>, 《불교학연구》, 제5호, 2002.

삼교합일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다원주의에 속한다. 따라서 삼교합일을 주장했다고 해서 다 포괄주의자도 아니요, 다 다원주의자도 아닌 것이다.

4. 結 語

이상으로 필자는 유가 도통계보가 공자에서 민간종교까지 어떻게 흘러왔고, 또 도통계보가 종교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한유의 도통계보는 배타적이고, 주희의 도통계보는 포괄적이며, 민간종교의 도통계보는 보편적으로 다원주의적임을 논하였다. 그리고 한유와 주희의 도통사상은 세 가지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도 발견하였다. 첫째로 유가학설이 정통이라는 것, 둘째로 유가학설이 치세에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 셋째로 그러므로 유가의 도를 널리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민간종교와 관련된 다원주의적 도통계보는 가장 '평등하고 평화적인' 종교사상을 지니고 있음도 알았다.

우리는 흔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⁵⁰⁾란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자기가 신앙하는 종교의 진리를 강조하다보면 그 진리를 우상화하고, 그 진리에 얽매어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그러다보면 타 종교를 배척하고 무시해서 마침내 충돌의 사태까지 발전하여 종교의 본뜻에 어긋난 행동을 저지르게 만다.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지구촌 전쟁 중에 종교가 관련되지 않은 전쟁이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한다. 그런 면에서 臺北 故宮 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남송의 작자미상의 한 폭의 그림 <虎溪三笑圖>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자못 크다.

이 그림의 화폭 중앙에는 虎溪의 급한 물줄기가 세차게 흐르고 있고, 좌우 양쪽에는 단풍든 교목들이 가을임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림의 오른쪽으로부터

50) 《요한복음》8:32.

세 사람이 다리를 건너와 양천대소하고 있다. 이 그림은 ‘虎溪三笑’를 주제로 그린 그림이라 세 사람의 신분도 알 수 있으니, 바로 유생 陶淵明, 도사 陸修靜, 그리고 승려 慧遠이다.⁵¹⁾ 一士一道一僧이 서로 부여잡고 크게 웃어 제키고 있는, 조금은 과장된 듯한 이 그림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바로 ‘삼교합일’사상이다. 역사적으로는 비록 이들 세 사람이 함께 만난 일이 없edah지라도 후세 화가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많이 그린 이유는 “삼교의 평등과 평화”라는 이상적인 주제 때문이다. 어쩌면 이 한 폭의 그림이 진정한 다원주의가 무엇인지, 어떤 종교적 태도가 옳은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 參考文獻 >

- 朱熹, 《朱熹集》(全十冊), 민족문화문고, 1997.
 朱熹, 《朱子語類》, <http://www.guoxue.com>
 韓愈, 오수영역, 《韓愈散文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馬西沙·韓秉方, 《中國民間宗教史》, 上海人民出版社, 1992.
 구보타료은, 최준식역, 《중국유불도 삼교의 만남》, 1990.
 윤영혜, 《주자의 선불교비판 연구》, 민족사, 2000.
 정성본, 《선종의 전등설 연구》, 민족사, 2010.
 李書有主編, 《中國儒學倫理想發展史》, 江蘇古籍出版社, 1992.
 唐大潮, 《明清之際道教“三教合一”思想論》, 宗教文化出版社, 2000.
 김용남, 《성리학, 유불도의 만남》, 운주사, 2003.
 김용표, 《불교와 종교철학》, 동국대학교출판부, 2006.
 성염, 《종교다원주의 시대의 기독교와 종교적 관용》, 민지사, 2001.
 윤영혜, <유교와 도교 그리고 불교의 다원주의 가능성>, 《불교학연구》 제5호, 불교학연구회, 2002.
 이찬수, <한국 불교와 그리스도교 관계의 역사>, 《종교교육학연구》 제19권, 한국종

51) ‘虎溪三笑’에 대한 이야기는 남송 陳聖俞의 <廬山記>에 나오는데, 이에 대한 전고를 이용해 쓴 唐 李白의 <別東林寺僧>이란 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늦어도 위진남북조시대부터 이미 ‘虎溪三笑’의 전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교교육학회, 2004.

송하경 · 안은수, <당송대 유학자들의 排佛 의식>, 《동양철학연구》 제25집, 동양철학 연구회, 2001.

최일범, <불교와 도교, 대립과 투쟁 그리고 융합>, 《불교평론》 제39호, 만해사상실천 선양회, 2009.

羅義俊, <中國道統 : 孔子的傳統——儒家道統觀發微>, 《鵝湖月刊(대만)》 第355期, 2005.

김정기, <清代 民間宗教 祖師 研究>(上)·(中)·(下), 《中國學論叢》 第23輯(2007)· 第25輯(2008)· 第34輯(2011), 한국중국문화학회.

< 中文提要 >

道統論是指儒家編制的道的傳承系譜。它雖然是儒家學說中一種重要的思想，但是却是在討論關於中國悠久歷史和文化的正統及是非時的判斷準據，也是中國人的普遍性觀念。當今，雖然中國人視儒家道統論為封建正統觀念並不怎麼給予關注，但是仔細研究道統觀念的話，我們可以看到至今為止依舊對中國人的思考方式帶來很大的影響，並且還可以發現很多肯定的，發展的，有益的方面。

關於儒家的道統論，有人認為是受禪宗的傳燈說的影響而產生的，實際上儒家的道統論是在東漢時期佛教傳入中國之前就已經在儒家自生，形成很久的觀念。韓愈受禪宗的傳燈說，即法嗣觀念的影響首次提出道統論，但是從歷史的角度來看，道統論始於孔子。孔子在《論語》中屢次指摘出天命是按照堯·舜·禹的順序相繼傳承的。孔子的道統思想傳遞給孟子，孟子自任為是繼承孔子道的後繼者，還有韓愈又自任為是繼承孟子道的後繼者。

本論文是觀察儒家道統論的內容及演變的過程，特別是從宗教哲學的層面來觀察道統論的含義是什麼，並且一起探討民間宗教所主張的三教合一的道統論蘊涵着什麼含義。

關鍵詞：道統論、三教合一、民間宗教、排他主義、包括主義、多元主義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2. 9. 25.	2012. 11. 2.	2012. 11. 16.	2012. 11. 21.	2012. 11. 30.